아자토스

Azathoth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Azathoth" (Leaves 1938 (집필 1922, 미완 단편))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Wikisource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시해주신 원문 텍스트가 누락되었습니다. 번역할 「아자토스(Azathoth)」의 원문을 입력해 주시면, 설정하신 모든 규칙과 문체 가이드를 엄격히 준수하여 즉시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1922년에 집필되었으며, 1938년 잡지 『리브스(Leaves)』에 단편으로 발표되었다.

이 남자의 이름과 거처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거의 없다. 그 모든 것이 깨어 있는 세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모두 불분명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메마른 황혼이 지배하는 높은 성벽의 도시에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온종일 그림자와 혼란 속에서 고된 노동을 했다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할 것이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그의 방에는 창문이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 창밖으로 펼쳐진 것은 들판이나 숲이 아니었다. 그저 다른 창문들이 무기력한 절망에 빠진 채 응시하고 있는 어둑한 안뜰뿐이었다.

그 창가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벽과 창문뿐이었다. 가끔 몸을 멀리 내밀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작은 별들을 올려다볼 때를 제외하면 말이다. 꿈꾸기를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이에게, 그저 벽과 창문만을 마주하는 일은 머지않아 광기로 몰아넣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방의 거주자는 밤마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깨어 있는 세계와 회색빛 도시의 단조로움을 넘어,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무언가의 파편이라도 엿보기 위해서였다.

수년이 흐른 뒤, 그는 느릿하게 항해하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별들이 아쉬운 듯 시야에서 멀어질 때면 상상

속에서 그 뒤를 쫓았다. 마침내 그의 시야는 평범한 눈으로는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스러운 풍경을 향해 열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대한 심연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 꿈에 홀린 듯 부풀어 오른 하늘이 외로운 관찰자의 창가로 쏟아져 내려왔다. 하늘은 방 안의 답답한 공기와 뒤섞였고, 그는 그 경이로운 환상 속의 일부가 되었다.

그 방 안으로 황금빛 먼지가 반짝이는 보랏빛 한밤중의 거친 물결이 밀려들었다. 궁극의 공간에서 휘몰아쳐 나온 먼지와 불꽃의 소용돌이, 그리고 세계 너머에서 전해지는 짙은 향기가 방을 채웠다.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태양빛이 비치는 아편 같은 바다가 그곳에 넘실거렸다. 그 소용돌이 속에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심해에서 온 기이한 돌고래와 바다 요정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소리 없는 무한함이 꿈꾸는 자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실어 날랐다. 외로운 창가에 뻣뻣하게 기댄 채 놓여 있는 육신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은 채 말이다. 인간의 달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수일 동안, 먼 곳의 구체에서 밀려온 조수가 그를 부드럽게 실어 날라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꿈으로 인도했다. 인간이 잃어버린 바로 그 꿈들로. 그리고 수많은 주기가 흐르는 동안, 파도는 그를 초록빛 일출이 내리는 해변에 다정히 눕혀 두었다. 연꽃 향기가 감돌고 붉은 카말로테 꽃들이 별처럼 흩뿌려진, 그 초록빛 해변에.

1938년에 출판된 저작물은 1965년 또는 1966년에 저작권 갱신이 가능했다. 즉, 출판 또는 등록 후 27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8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할 수 있었다.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1967년 1월 1일부로 퍼블릭 도메인(공유 저작물)이 되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